

지금 이시각

비영리 월간아카이브
발행 _ pigheadlab

TIME NOW

2024. 1
열아홉번째

김희진

멸망 이후
생존을 위한 시낭독

이채연

갤러리175

오종원

종장기 콘텐츠 :
자전거를 타자_1

김가영

시의 운명

김유주

비가 오면 뭘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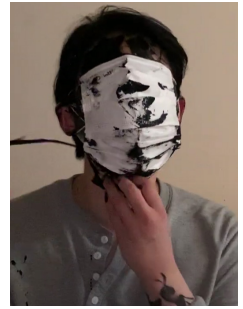




표지이미지 :

아차산 밑자락에 위치한 속칭 ‘두부집’. 몇 군데 비슷한 곳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곳만 가보았다. 처음에는 큰 기대가 없었지만 막걸리가 종류 상관없이 3천원에 꽤나 맛있는 모두부 및 순두부를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고, 몇 번 가고 나니 전체적인 음식들이 맛도 좋으면서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어느덧 아차산 산행 후 보급을 위해 먹기보다 이 두부집을 방문하려고 아차산을 가는 느낌. 요즘에는 그저 두부집에서 막걸리 먹고 싶어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두부야 그 맛이 그 맛이라 할 수 있겠지만, 두부를 좋아하는 필자로서는 모든 두부가 다 각자의 맛과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이 집의 숨숨한 순두부 한그릇이 땡기고, 막걸리 마시고 입에 집어넣는 모두부 한조각에 세상의 근심이 사라지는 기분이다. 이 집의 메뉴에는 옛날 방식의 닭발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근래 먹었던 닭발 중 제일이라 생각한다.



김 희 진
노동자

멸망 이후 생존을 위한 시낭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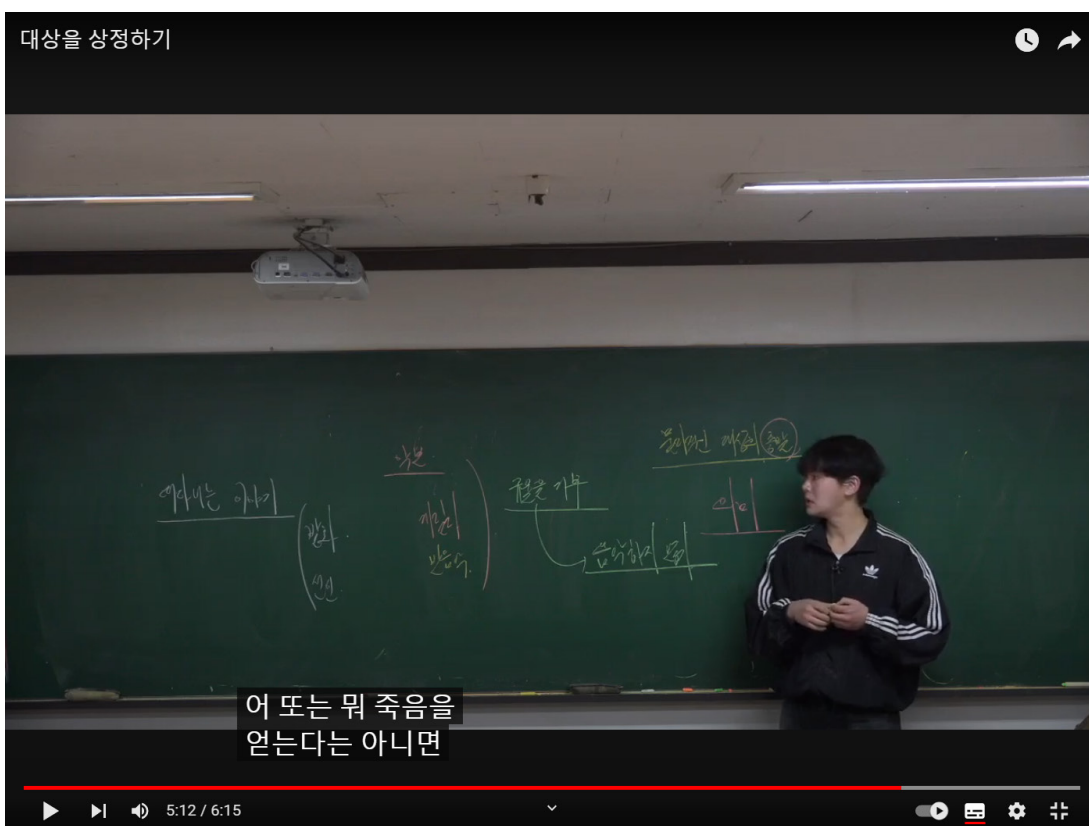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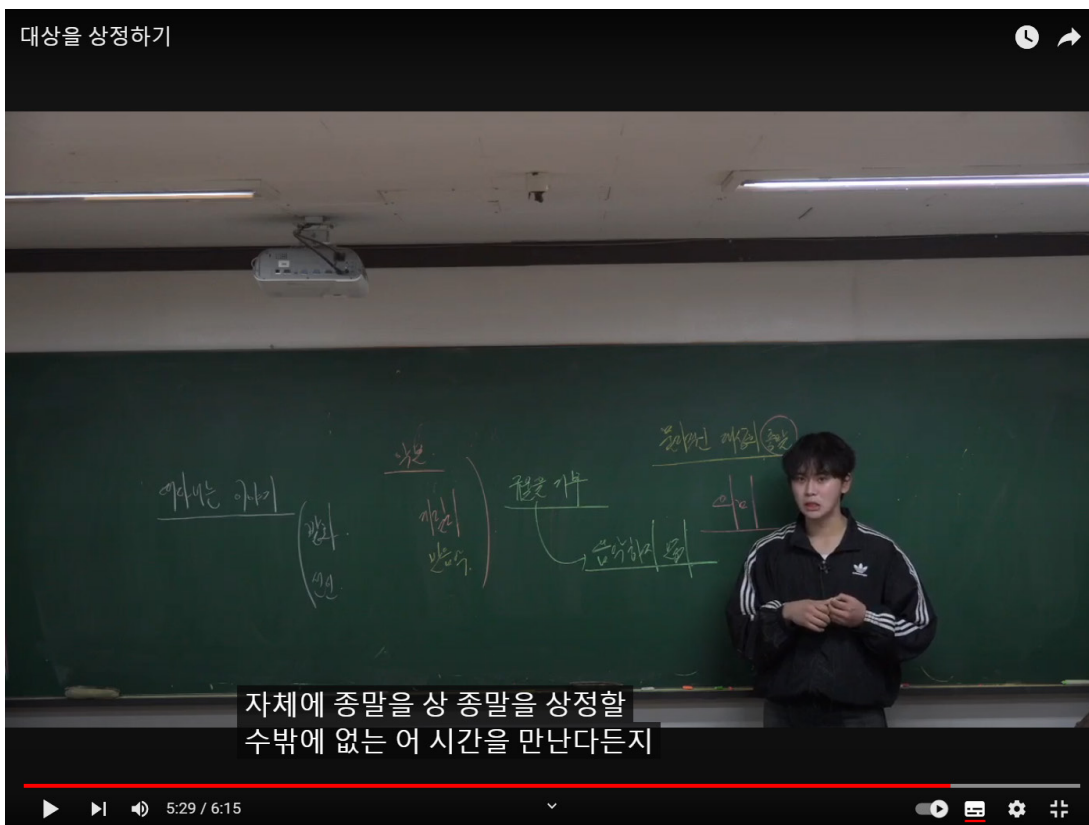
빳어낸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은 필연에 따른 상처로 이루어져 있다. 즉 얼굴에 있는 눈과 코, 입 등은 모두 흉터를 구상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아픔을 선행한 것이다. 벗겨짐과 찢어짐과 차오름은 얼굴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다. 초점을 다름 아닌 내 눈에 둔다. 주의를 기울여 자극에 집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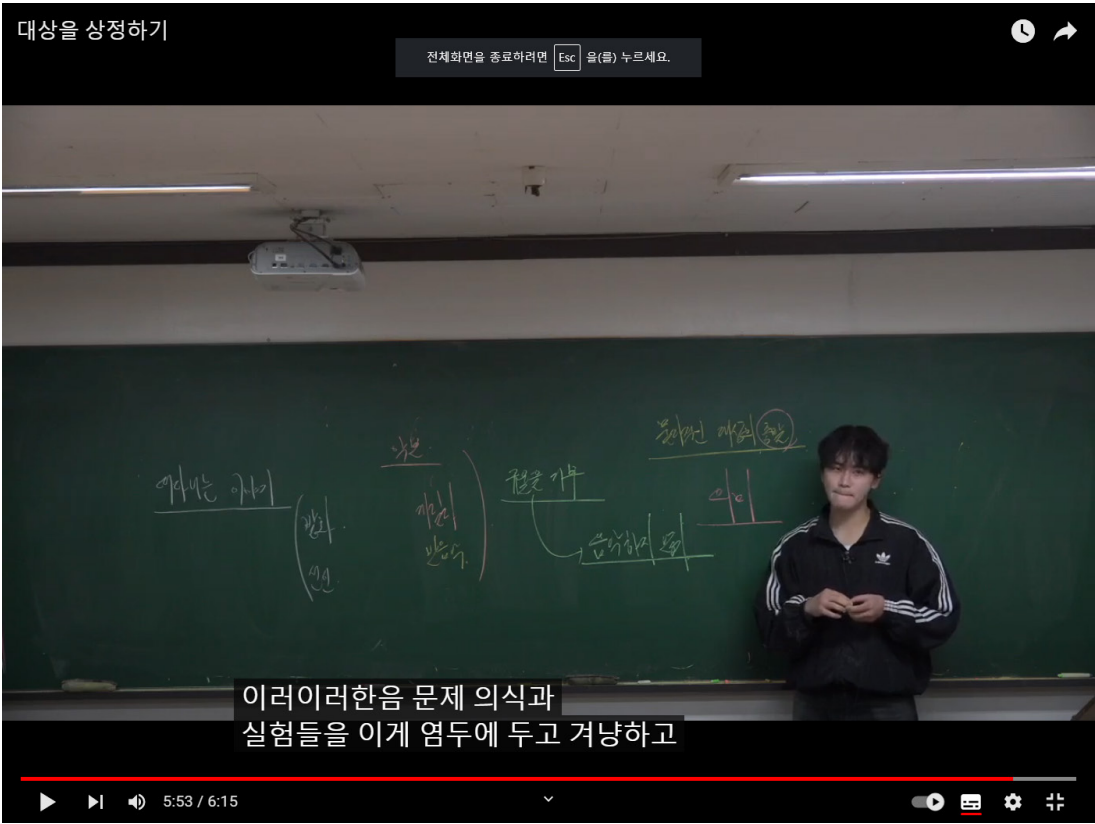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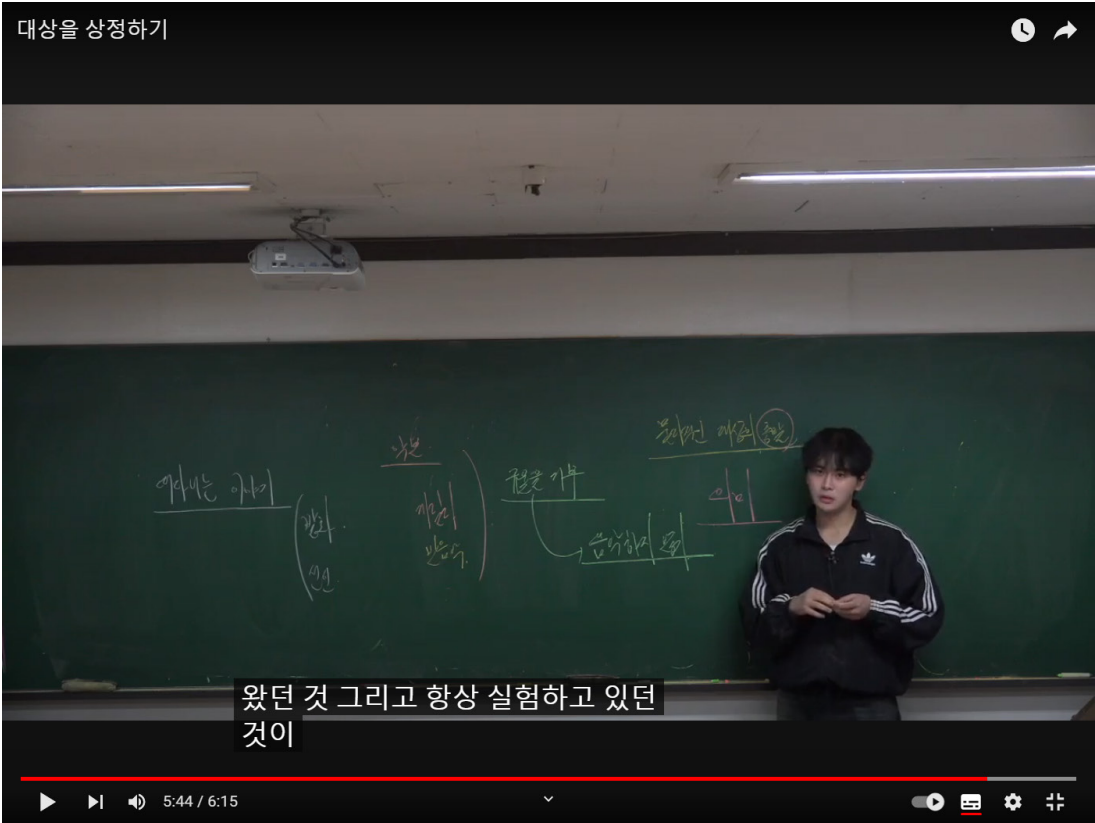
극을 시작하면 그는 주변 공기를 조금 바꾼다. 대사를 곹씹어 읊어낸다. 죽을병에 걸린 모양을 만든다. 거짓 없이 병에 들었는지 구분할 수 없도록 그는 그렇게 행동했다. 언젠가 공원 앞의 들장미를 기억한다. 사실 나는 들장미를 정말로 느껴본 적이 없다. 겨우 번데기에 갇혀 있을 때의 실루엣을 뿌리 안에서 보았는데 아주 낮고 붉은 것이 구부러진 모양이었다. 들장미란 병에 걸린 장미를 부르는 말이구나 하고 단정했다. 이후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때 그렇게 자만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구태여 너를 붙잡아 세운 뒤 예전과 같은 모양으로 옷깃을 안아 그 공백을 다시 짚어보았다. 이슬은 여명에 근사한 소리를 내며 낙하하지만 지독한 위선자인 나는 어떤 표정도 지을 수 없었다. 억양이 없는 입 모양으로 대사를 읊는다. 광대는 광대인 이상 누구도 물감을 지향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 이미 너무나 익숙한 가면이기 때문이다. 웃음이 직업인 고깔모자는 풍선으로 장미를 만드는 데에 현기증을 느낀다. 잠시 귀마개를 끼고, 조명을 켜 다음에 몸으로 먼지를 구현했다. 가위를 찔랑이며 입술에 피를 내고, 가면에 구멍을 낸 후에 필기구를 거기에 끼웠다. 쿵 쿵거리는 소음을 종이에 얹은 다음에 뱃고동 소리를 따라 했다. 괜히 소리를 지르고, 술병을 깬 다음에 배꼽 앞에 겨누기도 했다. 다시 팔을 앞으로 뻗은 다음에 입술을 쪽 내밀고, 장갑을 밀어 끼었다. 불안한 듯이 주변을 살피다가 약간 울먹이는 표정을 지었다. 손은 여기에 놓지도 못하고 저기에 놓지도 못했다. 핏줄은 그대로 세웠다. 바지춤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다. 손가락을 목젖까지 넣어서 구역질하려다가 말았다. 입술에 힘을 뺐다. 입술에 힘을 주었다. 쇄골에 힘을 주었다. 어깨를 안으로 넣었다. 손을 이마 위로 쓸었다. 배를 한껏 내밀었다. 허리를 사방팔방 휘저었다. 움직여보니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많았다. 팔꿈치는 바깥을 향하지 않았다. 딱히 수식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었다. 푸른빛이 나를 감쌌다. 관자놀이를 쥐었다. 창문틀에 앉았다. 다시 일어섰다. 장막을 쳤다. 다시 거두었다. 욕을 지껄인다. 다시는 고백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악력을 갖고 이마와 턱을 함께 잡았다. 나만 느

끼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다들 가진 시간성이 있을 것 아닌가. 굉장히 평범한 여유로 굳어진 날카로움이라고 달아놓는다.

고립하기 시작한 마음은 그때부터 각자를 귀퉁이로 움직인다. 그렇게 모인 겁쟁 이들이 슬픔이고 외로움이고 아주 고약한 무리가 된다. 이들을 잡아내려고 며칠을 앓았는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나는 절벽 앞으로 가야 했다. 일어나고 싶지 않은 날이었지만, 사실 일어나고 싶었던 날도 그저 없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코를 스치는 찬바람이 그럴듯한 향을 내어 마음을 가라앉혔다. 시간을 흘깃 보고 발을 서두른다. 오늘따라 더 많은 것에 짓눌린다. 책걸상에 걸쳐서 노트 위에 필기한다. 아니면 손바닥 위에 못을 박는다. 그것도 아니면 나비 등에 앉는다. 두 손을 땅에 대고 나를 지탱했다. 주체를 알 수 없는, 또는 없는 생각을 한다. 전단이 떨어졌다. 잘 도착했어?, 따위의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다. 답장할 이유는 없지만 웃음 가득한 표현을 써낸다. 손가락 두 개는 꼬인 위치에 있다. 피곤함을 느낀다. 저기 오는 이는 아주 싫은 사람이다. 사실 좋아하는 것은 없고, 싫어하는 것과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 저 사람은 위선이 심해 싫었다. 그 옆 사람은 웃을 때 머리가 하나 더 생겨 싫었고, 그다음 사람은 옷매무새가 미끄러워 싫었다. 싫은 것이 싫은 이유는 그것이 싫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에게 손을 흔든다. 그곳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는 흥내를 내며 눈을 크게 뜨고는 나도 '안녕' 한다. 안녕, 하고 묻지만 궁금하지 않은 것을 알기에 돌아선다. 얻은 것 없이, 잃은 것도 없이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오른다. 지하철보다 버스가 좋다 오래 걸리지만 밖이 보이니까. 풀잎을 귀에 꽂고 귀에 익은 노래만 골라서 듣는다. 볼륨을 올려 창 이외의 것을 지운다. 메시지가 몇 개 남겨져 있지만 알고 싶지는 않다. 날이 선 가지가 목 끝을 간질였다. 가방을 건네받았다. 목을 뒤로 꺾어 식탁보를 삼켰다. 휠체어에 올라타 반짝이는 점을 쓰다듬었다. 🐱









이 채 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갤러리175

지난 12월 갤러리175에서 개인전을 했다. 이 장소에서 전시를 하게 된 이야기를 쓴다.

여기는 졸업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갤러리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공간이기에 학교 행사와 공모선정 전시가 열린다. 재학생과 졸업한지 얼마 안 된 작가의 실험적이고 젊은 느낌의 전시가 대체로 열린다. 거기에 비해 내 작업은 고전적이고 곱다. 결이 달라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의 전시공모에 지원한 것은 용기를 낸 일이고, 될 것 같지 않은 일을 한 것이다. 다행히 운이 좋게도 공모는 되었고, 전시를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소소하게 작업을 깨작 되다가 좋은 기회로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서 작업을 다시 건들이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작업을 저질러보지 못한 미련이 있기도 했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제 할 타이밍이야’라고 내 마음이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서 시간 여유가 조금 생겨서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의 경우는 풀타임으로 일할 때 보다는 시간이 더 생겼다.

그때의 나는 작은 이야기라도 내놓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고, 안 하면 환병이 날 것 같았다. 지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은근한 관중 기질은 있는 것 같다. 흔히 말하는 자아 찾기 같은 걸까? 엄마라 불리게 되면서 ‘엄마’라는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졌지만 그 이전의 자아는 희미 해진다. 엄마로 다시 태어난 느낌이다. 영 어색하다. 엄마로 살기는 적응이 느리다. 올해로 엄마경력 13년차인데 그렇다.

엄마로서 가족과 한세트로 단단히 묶여 있는 것이 안정적이기도 했지만 답답하기도 했다. 엄마와 엄마가 아닌 나, 종합적인 나의 작업을 하고 싶었다.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뻔했지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나를 보여 주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내 삶에 이미 너무 찼하게 녹아 있다. 하하.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졸업한지도 오래 되었고, 아는 작가도 별로 없고, 생활비 아껴서 재료비로 쓰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총체적으로 뭐가 뭔지 몰라서 전전공공이었다.



사진1_자축의 의미로 둔 파 화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난리였던 작업을 하는 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 내 새끼 같은 결과물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다. 하지만 무작정 혼자 좋아서 하는 작업만 할 수는 없다. 정해진 길이 없고, 언제까지고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지, 인정은 받을 수 있을지,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와 같은 자기검열도 같이 가기도 한다. 겉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살림하며 작업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고 했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다. 걱정이 많은 편이라 불안을 크게 느껴서 그런 것 있고 주변에 작업을 하는 동료가 적은 편이고 혼자 작업을 해 와서 이런 마음을 더 크게 느낀 것 같다. 그러다 문득... 학교라는 테두리 안을 누리고 다녔던 학생 때가 그리웠다. 학우들 같이 작업하고 고민을 나눴고, 학생이라는 이름표가 있는 그때. 현재 나를 지칭하는 ‘작가’라는 말은 내게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책임 없는 생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다. 크reative한 생산자 정도가 맞을 듯하다. 학생도 작가도 아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창작을 하는 사람. 이렇게 쪽 쓰다 보니 속이 쓰리다. 이게 외면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으니 복 받은거야~ 하면서 마음을 다독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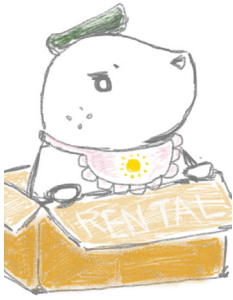
안정과 소속에 대한 그리움이 갤러리175공모로 이어졌다. 사실 학교 갤러리라는 것은 나에게 전시 공간과 소정의 지원금을 줄 뿐 안정감을 주지는 않는다. 그런 걸 알면서도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진짜 기댈 수는 없었지만,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참 고마웠다. 작품 팔아 부자 되면 기부라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갤러리 175에서 한 전시는 이제까지 해왔던 정성 가득한 채색화-평면위주의 작업이 아니라, 책과 영상이라는 새로운 작업을 내놓았다. 새로운 작업을 선보이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길이로, 확신이 없고, 간혹 망설임도 있다. 거기다 전시기회를 얻기 어려운 편이기도 하다. 안개가 자욱해서 사방이 안보이는 길이 연상된다. 그런 감 잡을 수 없는 길을 누군가가 지지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여기는 학교니까 새로운 거 해서 어설프고 실수해도 이해해주겠지 하는. 학생은 아니지만 학생이고 싶은.

예전에 첫 개인전 같은 전시를 갤러리175에서 했다. (하루만 개인전이라 ‘개인전 같은’ 이라 씀) 졸업작품은 입체 작품이었는데, 여기서는 다른 매체의 전시를 했다. 퍼포먼스를 했다. 깊게 생각 안하고 충동적으로 농담같이 하던 생각을 실행했다. 갤러리를 신당처럼 꾸미고 무녀처럼 옷을 입고 관객의 이야기를 듣고 부적을 써드렸다. 평소의 나와는 다른, 새로운 시도였다. 내가 이런 작업을 하다니! 퍼포먼스는 정말이지 완전 거리가 먼 일이라 생각했는데.... 스스로에게 놀랐다. 이렇게 새로운 작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추억이 있기에 전시공모를 하게 된 것 같다. 학교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곳. 올해는 이전한다고 한다. 예산과 이전... 이 두 단어는 조합은 가변적이고 불안하다. 언젠가 다시 여기서 전시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때까지 잘 버텨주었으면 좋겠다. 🐾



그림1 어서옵서_디지털 페인팅_2023



오 종 원
문화예술인력 /
피그헤드랩 운영

중장기 콘텐츠 : 자전거를 타자_1

새로운 해를 맞아, <지금 이시각>을 바탕으로 연속되는 콘텐츠를 준비해야지 마 음먹게 되었다. 안 그래도 작년부터, 책 같은 것을 한 번 엮고 싶다고 생각해왔고 처음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나름의 입문기를 구상했었다. 그런데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내가 지금의 현대 예술을 어떻게 받아 들 이고 있는지 등을 고민하면서 다소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더라. 그래서 반은 연습 겸 또 반은 부담 없이 내가 근 몇 년간 애착을 품은 취미에 대해 소개해 보기로 하 였다. 그것은 바로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이다.

아 물론 <지금 이시각>은 문화예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예를 바탕으로 지속하 는 콘텐츠가 맞다. 본 이야기가 이와 상관없이 느껴진다면 이는 편집자의 재량 같 은 것이니 이해를 부탁한다.

자전거를 타자_1

나는 몇 년간 자전거를 타고 있다.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정도면 자전거를 정말 좋 아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관심을 들였고, 내가 직접 자전거를 조립해보기도 하면서 이에 대한 애착이 꽤 커졌다. 지금도 3대의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유가 된 다면 또다른 아이를 대려 오고 싶다는 충동이 든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라 이더에게 자전거 2대 이상은 이상할 게 아니다. 각 자전거들마다 목적이나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폭 빠지는 대부분의 취미들이 그러겠지만, 자전거를 즐기고 나서 주변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시작하였다. 혹자의 말에 따르면 마치 종교에 빠진 사람처 럼 느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럴지도 모른다. 현재까지 내 주변에 3명의 지인이 자전거를 시작했고 공통적으로 나를 제외한 이 셋은 다이어트 효과까지 맛보고 있 다.

이번 글은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 중 제일 첫 글인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 게 권했는지, 자전거라는 것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한 다. 일부 내용은 어떤 과학적인 증거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직접 경 험하고 느낀 바를 바탕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자전거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탈 수 있다.

진심으로 나는 운동치이다.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았고 맛있는 음식도 좋아하는지라 몸무게가 정상체중인 적이 없었다. 날 때부터 자주 앓았기 때문에 조금 금이야 옥이야 했던 것도 있었고, 체육 점수는 늘 하위권, 운동이라는 개념은커녕 신체를 자극하는 행위 자체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 같은 운동 바보라도 누구나 어릴 적 자전거를 배우게 된다. 처음엔 대체 이걸 어떻게 하지 했던 것도 페달을 밟으며 중심을 잡기 시작하면 어느덧 자연스럽게 타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자전거 타는 것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연습용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내 목적에 맞는 자전거, 레저의 개념인 운동용 자전거까지 넘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순식간에 타는 사람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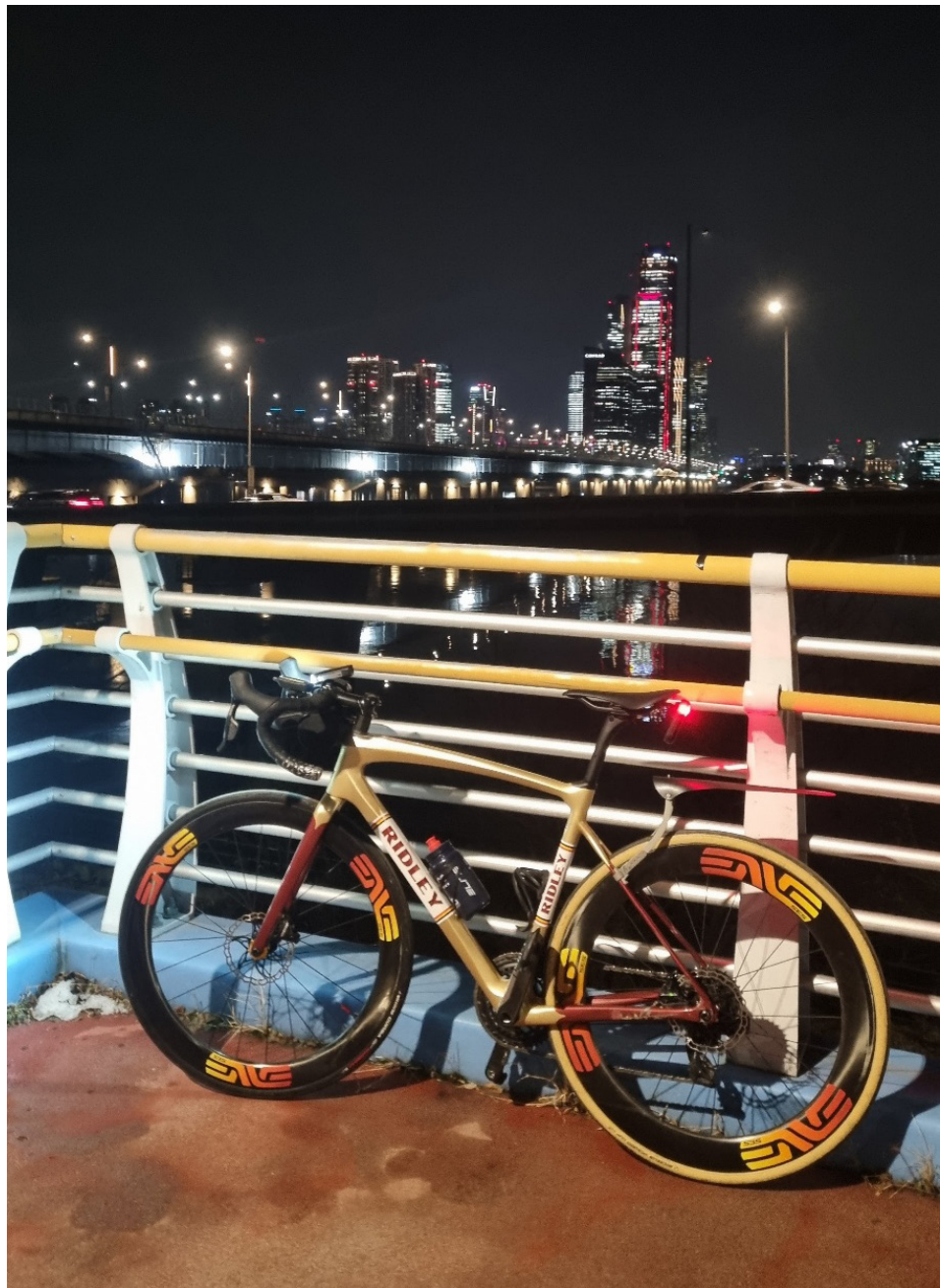
설령, 나는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우지 않아서 지금도 못 타는데 생각한다면 걱정 마시라. 혹시나 자전거를 배우고 싶다고 몇 번 중얼거리다 보면 분명히 주변에 나처럼 오지랖 넓은 사람이 나타나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페달을 밟을 줄만 알면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 자전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자전거를 권장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 이것이다. 자전거는 진짜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 자전거를 제대로 타기 시작하면 하반신은 물론 코어의 힘 또한 많이 쓰게 된다. 자전거를 탄지 얼마 안되거나 입문단계라면 그저 허벅지나 엉덩이 정도에 자극을 느낄 수 있겠지만, 어느정도 자세가 잡히고 나면 하반신은 물론 코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부분에서 일종의 털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는 의외로 칼로리 소모가 매우 큰 운동이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의 경우 로드 자전거로 1시간 내지 2시간, 적당히 라이딩을 하였을 경우 1천 칼로리 이상이 소비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 가민 스포츠 기기 측정 기준) 나중에 소개할 자전거 대회나 특정 운동코스의 경우 2천 칼로리 그 이상도 찍어본 적이 있다. 물론 엄연히 따지면 다른 격한 운동, 예컨대 크로스핏이나 런닝 같이 심장박동을 계속 높이는 운동, 고강도 운동이 다이어트 효과는 좀더 크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가 뛰면 얼마나 될 것이고, 격하게 운동을 한다고 하면 또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 여기서 자전거는 매우 큰 강세를 자랑한다. 자전거는 심장박동을 어느정도 높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완급조절만 한다면 하루 종일이고 탈 수 있는 운동이며, 또 안장 위에서 인터벌과 회복까지 가능한 운동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앉아있다’는 형태를 취해서 그런 것인지 휴식 또한 가능하다.

운동이란 것은 결국 어느정도 취향을 탈 것이긴 하다. 짧고 빠지게 짜릿함을 추구할 수도, 여유를 가지며 고통을 줄이고 스스로 완급조절을 하는 운동을 추구할 수도 있다. 아예 운동 자체를 입문하는 사람이라면 후자를 먼저 추천하는 바이다. (결국엔 두가지 다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필자의 로드자전거(사이클)

※ 해당 자전거는 레이싱 용 로드자전거(사이클)로 모든 자전거가 이렇지는 않다.

3. 자전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이다.

자전거는 관절에 충격을 덜 주는 운동으로 손 꼽힌다.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1위가 수영이고, 그 다음이 자전거일 것이다. 수영 자체는 워낙 좋은 운동이고 권장할 만하지만 반드시 수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데다, 나처럼 물 속에 들어가는 것에 호불호가 있는 사람들은 선뜻 내키지 않는다. 그런 지점에서 상대적으로 자전거가 수영보다 제반사항이 적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가 자전거를 즐기는 인구는 꽤 많은데, 얼마전 모 매체에서 1천만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자전거를 즐긴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날 좋을 때 한강이라도 나가면 정말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수많은 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그 중에는 정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자전거를 즐기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자전거는 신체에 큰 충격을 주는 운동은 아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자전거를 타보니 무릎이 / 허리가 / 혹은 신체 어딘가가 너무 아팠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자전거의 세팅이 본인의 몸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따릉이를 타고 통증을 호소하며 자전거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마치 하이힐을 신고 뛰었더니 발목이 너무 아파요라고 하는 것처럼 자전거를 본인의 신체에 맞추지 않고 그냥 탔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어려울 것도 없이, 대체로 안장을 허리선 정도만 맞추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서울의 경우 근래 따릉이 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많은 이들이 안장을 너무 낮춘 채로 타는 것을 보았다. 따릉이를 포함해 대다수의 자전거, 특히 공용자전거는 100%의 확률로 안장의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가 달려있다. 이를 조절 안하고, 특히 허리보다 안장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면 필히 무릎에 타격을 주고 이는 허리까지 올라오는 통증으로 발전하게 된다. 운동을 해서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닌 신체에 무리가 가는 통증이다.

그러다 보니 자전거를 입문하는 이들에게, 따릉이보다 차라리 아주 저렴한 자전거라도 본인의 것을 하나 마련하기를 권한다. 새로 산다면 당연히 샵에서 세팅해줄 것이고, 중고로 사더라도 조금 견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본인의 몸에 맞춰줄 것이다. (그럴 사람이 없으면 샵에 가져가도 된다.)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어서 안장높이 정도만 맞춰도 반 이상은 하는 것이다. 딱 자신의 몸에 세팅된 자전거가 있으면 그 외에 통증은 운동 효과일 뿐이다.

※ 목과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여 심하게 앓고 있는 중에는 예외이다. 여기에는 조금 의견 차이들이 있는데, 자전거 커뮤니티에서는 발병 중은 안되지만 어느정도 치료를 받고 관리 차원에서는 적극 권장하는 추세이다. 필자 역시 허리디스크가 발생한 적 있으나 시술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자전거를 다시 타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재발하진 않고 있다.

4. 자전거는 언제 어디서나 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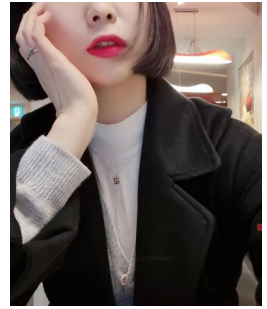
제목은 이렇게 써 났지만 사실 자전거가 완벽한 운동이라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는 날씨의 영향을 꽤 받는 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와 눈이 내렸을 때에는 타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기온이 30도 이상을 넘기거나 0도에 가까워져도, 미세먼지가 심할 때도 자제하는 편이다. 물론 그럼에도 탈 사람들은 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위의 제목처럼 표현하는 이유는 자전거란 것이 결국 길만 있다면, 두개의 바퀴가 지면에 닿고 타는 이가 환경을 버틸 수 있다면 언제든지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필자도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데, 영상 30도에서 영하 5도까지는 옷을 맞춰 입어가며 자전거를 타고 있다.

꼭 어디 멀리 나가거나 야생에 뛰어드는 것이 아닌 집 근처 공원이나 공터를 조금 달리는 것, 혹은 인근 마트에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러 가는 것 정도는 크게 지장을 받는 편도 아니다. 오히려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외부 기온과 날씨에 맞는 옷과 장구류를 착용하는 노하우가 생겼고 날씨를 음미하는 경험이 쌓이기 시작했다. 이런 날씨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 경험 같은 것들.

제일 중요한 것은 필자가 사는 서울의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강과 인근의 천들이 자전거 도로로 잘 이어져 있는데다 관리를 꽤 잘해주는 편이라 생각한다. 장마가 와서 한강이 넘쳐도 며칠이면 청소가 되어있고, 눈이 많이 오더라도 다음날 거의 다 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물론 이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한국은 특히나 아스팔트 도로 보급율이 정말 높은 곳이라고 하며 전국에 도로망이 뚫리지 않은 곳이 없다. 자전거를 탈 용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출발하고 도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계속) 🐱



김 가 영

책과 그림을 읽는 사람

시의 운명

올 한 해는 내내 시 언저리에서 서성일 운명이다. 지난 여름에 이렇게 썼다. 이제 그 운명이 지나갈 모양이다. 무사히 시화전을 마쳤다. 시는 꽤 아름다웠다. 시를 쓰는 것은 행복하고도 불행하고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행복하고도 불행하고도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조금 슬프다고도 생각한다. 운명처럼. 그 운명이 지나가는 일처럼.

같이 공부했던 어느 선생님께서 쓰신 시의 제목이 '화이부동' 이었다. 읽으며 역시 논어 계씨편에 나오는 불학시不學詩 무이언無而言을 떠올렸다. 시를 배우지 않으면 남과 더불어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시는 아름답고 조금 슬프다. 사랑은 슬픔을 보는 일이다. 남의 슬픔을 들여다 보는 일은 애뜻하고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이 시라고 생각한다. 불학시 무이언. 남과 더불어 말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 조금 알 것도 같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의 서랍이 있다. 타인은 알 수도 열 수도 없는 서랍이다. 그러나 우리가 시를 배우고 시를 읽고 시를 쓸 때에 나는 다른 분들의 서랍을 조금 열어본 것 같다고 느꼈다. 서랍에 든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랍이 열려졌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 또한. 불학시 무이언. 서랍이 열리면 이제 정말 더불어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이 배웠다. 사람을 읽고 사랑을 배우며 시를 썼다. 시가 있던 그 밤들이 아름다웠다. 그러나 시의 일은 읽히고 잊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다. 운명처럼. 그 운명이 지나가는 일처럼 말이다. 🐱



비가 오면 뭘 하나요?



김 유 주
쉬어가는 사람

2022년 8월 2일, 태국 남부에 있는 끄라비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화장실을 찾아 달렸다. 보통 지역이동을 하면 눈치껏 무리에 섞여 중심가로 이동을 하는데,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모두 떠났는지 버스정류장에는 다가오는 택시기사들도, 어딘가로 떠나는 여행자 무리도 없었다. 마침 보이는 썬태우(트럭을 개조한 형태의 공유차량) 기사에게 다가가 손짓과 표정으로 흥정을 시도했다.



승객은 우리 둘 뿐이었지만, 나름 합리적인 가격으로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긴 침묵이 찾아왔다. 깨질 것 같은 엉덩이와 끝내주는 승차감으로 인한 울렁거림으로 죽을상을 하고.

산 길을 40분 쯤 달렸을까? 인적 드문 도로를 달리던 차가 멈춰 섰다. 그리고 기사는 우리를 끌어내렸다.

“여기에 내려주면 어떡해? 여기가 어딘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사님을 붙잡고 따졌지만 기사님과의 소통은 불가능했다.

“아오낭비치!!!!(에 내려준다면서요?)” “아오낭비치!!!!(가 어딘데요?)” “아오낭비치!!!!!(로 가야해요.” 우리는 유일한 공용어인 ‘아오낭비치’(목적지)만 외쳐댔다. 잠깐의 실랑이 끝에 기사님이 길 건너편을 가리켰고, 한 남자가 다가왔다.

‘누구지?’ 하는 사이에 우리의 기사님은 냉큼 떠나버렸다. 답답하지만 당장 다른 대안이 없던 우리는 그 남자를 따라갔다. 알고 보니 그는 다른 썬태우 기사였다. 새로운 썬태우에 몸을 싣긴 했지만 이번엔 마냥 좋을 수 없었다. 경계 태세로 계속해서 “아오낭비치!(로 가는거 맞죠?)” “아오낭비치!(까지 가주세요)” “아오낭비치!(에 내려줘야해요!)”를 반복했다.

그렇게 또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분명, 이 길은 아까도 본 것 같은데.. 도대체 목적지엔 언제 도착할 수 있는 것일까.’ 걱정은 잠시였다. 팡팡 튀고 낙하하며 철판에 부딪히는 엉덩이뼈와 연쇄적으로 철 기둥에 찍혀대는 등, 그리고 마스크로는 좀처럼 방어할 수 없는 시꺼먼 매연에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한 명 두 명 어느새 현지인들이 타기 시작했다. 마음이 조금 놓였다.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게 뭐지?”

“빗방울?”

‘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정말 순식간이었다. 썬태우에서 내려 배낭을 메고 있는데, 빗방울인가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자마자 비가 세차게 쏟아졌다. 급하게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다.

‘이렇게 갑자기 쏟아지는 비라면, 당연히 소나기겠지.’

숙소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짐 정리를 다 했는데도 빗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밖은 빗소리로, 방 안은 꼬르륵 소리로 시끄러웠다. 숙소는 조금 외진 곳에 있어 근처에 식당도 편의점도 없었다.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일기예보를 확인해봤다.

“야 !!!!! 8월 16일까지 비야! 오늘부터 2주동안 비가 온다고!”

믿을 수 없었다. 우리는 숙소 사장님을 찾아가서 이 일기예보가 맞는지 물었다. 친절한 사장님은 현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 확인사살을 해주셨다.

“망했다.”

결정을 해야했다. 어차피 그치지 않을 비라면 어두워지기 전에 비를 뚫고 먹을 것



그리고 먹게 된 태국에서의 첫 끼. 맛에 놀라고 가격에 환호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아무런 정보도 없는 작은 동네 식당에서도 먹을 수 있다니. 앞으로의 여행이 기대로 가득 차는 순간이었다.

옆 식당에서도 음식을 두둑하게 포장해서 다시 숙소를 향해 걸었다. 돌아가는 길은 그래도 내리막이라 수월했다. 막상 숙소에도 도착해 꼬박한 방에 들어오니 막막했다.

‘비가 2주나 내린다니.. 2주는 기다려야 아름다운 끄라비를 둘러볼 수 있다니.’ 한참의 고민 끝에 우리는 “내일 생각하자”는 아주 현명하고 단순한 결론을 내리고는 포장해 온 음식에 영화 한 편을 곁들여 훌륭하게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여전히 비가 내리지만 어제처럼 땅을 뚫을 기세로 내리지는 않았다. 2주를 그냥 보낼 수 없었던 우리는 스쿠터를 렌트하는 무리수를 두기로 했다.

그리고 주행 테스트 겸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 다녀왔다.

편의점에 주차를 하고 스쿠터에서 내리는데 바지에서 빗물이 한 바가지 쏟아졌다. 그래도 걱정만큼 위험한 것 같지는 않았다. 2주를 숙소에서만 보낼 수도, 끄라비를 그냥 떠날 수도 없다고 생각하니 무모해졌던 것 같다.



우리는 숙소로 가서 씻고 몸을 녹이고 비가 잠잠해지면 또 스쿠터를 타고 나가는 방식으로 꼬라비를 둘러보기로 했다.

우선 관광업소가 많은 아오낭해변 쪽으로 가봤다. 중간 중간 비가 아주 적게 올 때도 있어서 혹시나 비가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조금씩 욕심을 내며 꼬라비를 구경했다.

그래도 여행자들이 좀 있을 줄 알았다. 2주간의 비 소식에 맞춰 꼬라비를 방문한 바보가 우리 뿐 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생각보다도 그런 바보는 더 적었고, 많은 가게가 닫혀있었다.

우리는 젖은 몸으로 가볍게 내리는 비를 맞으며 아오낭 비치를 감상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추워서 얼마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이동하길 반복했다. 비가 조금이라도 덜 올 때 이 지역을 둘러보기로 하고 길을 나섰다.

젖은 몸에 바람을 맞으니 입술이 달달 떨어졌다. 어느 식당에 들어갔다. 국수를 시켰는데, 깊고 달큰한 국물과 부드럽고 큼지마한 닭다리, 완자, 닭발, 소고기가 고명으로 올라가는 음식이었다.

온 몸이 젖은 상태로 들어간 식당에서 이 국수를 한 입 먹는 순간 온 몸이 녹는 것 같았다. 여전히 물에 빠진 모양새였지만,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다.

결국 한 그릇을 더 주문해서 먹고 다시 길을 떠났다. 또 한 참을 달려 로컬 시장도



가보고 이곳 저곳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어떡하지?”

“날씨랑 도로 생각하면 숙소까지 1시간은 걸릴거야.”

우리는 결국 30분 정도를 달려서 다시 이 국수집으로 향했다. 연료를 충전하는 마음으로 국수 그릇을 비웠다. 음식 하나에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다.

비는 기다려도 잠잠해지지 않았다. 비를 맞는 것은 괜찮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것이 문제였다. 게다가 도로를 달리면서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작은 돌맹이들이 운전을 더 어렵게 했다. 화물트럭들과 한 도로를 달리다보니 종종 크고 작은 것들이 날아왔던 것이다.

날이 점점 저물고 있었다. 우리와 같은 마음인지 현지인들이 스쿠터를 타고 맹렬한 속도로 어딘가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우리도 그 무리를 따라 달리기로 했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외롭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나름 힘이 되었다.

덕분에 여러 고비를 넘기면서도 큰 사건 없이 숙소에 도착했다. 아주 길고 대단한 하루였다. 🐱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독자 의견을 들읍니다
문화예술인, 자신만의 세계를 소개하고 싶은 누구나 환영
합니다.

알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자신의 작업물, 소개하고 싶
은 것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아카이브 하도록하겠습니다.
pigheadlab@gmail.com / 프로필 이미지와 필명, 자기소
개

<지금 이시각>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
랩(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
습니다. <지금 이시각>내 콘텐츠 사용, 문의 등은 우선하
여 피그헤드랩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시각 TIME NOW_2024. 1, 열아홉번째

발행인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

www.pigheadlab.com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문의 : 01082339033

참여 필진 :

김가영, 김희진, 김유주, 오종원, 이채연